

부산시, '세계평화 중심도시' 브랜딩 강화

오는 24일부터 '부산유엔위크'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 비전 사전분업·감사·추모주간 진행 내달 1일 '부산 세계평화포럼'

부산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19일간 부산 일대에서 '부산유엔위크(UN Weeks in Busa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유엔위크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 소재지인 부산이 국제평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 가운데 하나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부산유엔위크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사전분업기간 ▲감사주간(10월 24일~31일) ▲추모주간(11월 1일~11일)으로 나뉘어 2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부산유엔위크 포스터. /부산시

특히 올해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지방보훈청, 남구청, 유엔평화기념관, 유엔기념공원, 아세안문화원, 문화회관, 교육청 등 8개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진행한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사전분업기간에는 ▲남구 유엔평화특구 참전국 국기거리 조성 ▲평화를 주제로 한·일·중3개국 어린이의 미술 작품을 전시한 미술 전람회 ▲제26회 유엔평화축제 등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유엔위크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지는 '감사주간'에는 ▲제79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평화의 빛 점등 ▲한국전쟁 영웅들의 이야기 시즈3 등이 개최돼 한국전에 참전해 자유 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 감사의 뜻을 표한다.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주간'에는 ▲세계평화포럼(11월 1일) ▲유엔피스로드(UN PEACE ROAD) 걷기대회(11월 3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등이 마련돼 있으며 추

모주간을 끝으로 약 3주간 이어진 부산유엔위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된다.

올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11월 1일에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되는 '부산 세계평화포럼'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유엔의 정신이 지켜낸 도시, 전쟁의 상흔 속에서 피어나 이제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해가는 기적의 도시로, 국제사회 연대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내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산증인 같은 도시"라며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유엔위크를 더 확대해 미래 세대가 평화의 소중함과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세계평화 중심도시 부산'의 브랜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가야문화축제'에 4개국 4개 도시 28명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방문했다.

김해시

4개국 대표단, 가야문화축제 방문

김해시는 지난 16~20일 2000년 가야역사와 문화를 녹여낸 '2024 세계유산 가야문화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4개국 4개 도시 28명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김해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16일 미국 레이크우드시를 시작으로 17일 베트남 띠이닝성, 18일에는 중국 우시시와 일본 무나카타시 대표단이 흥태용 김해시장을 접견했으며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개막식 참석에 앞서 환영만찬을 함께 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경주시, 대표 관광기념품 11점 선정

공모전 성료... 115점 작품 접수 대상 '경주의 밤 시리즈 무드등'

경주시는 제27회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1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115점의 작품 중 우수작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된 작품은 민·공예품 41점, 공산품 59점, 융·복합 상품 8점, 식품 7점으로 다양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장려상 6점 등 총 1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아트나·윤제민 씨의 '경주의 밤 시리즈 무드등'이 차지했다. 불국사의 야경과 신라 문화재를 소재로 한 감성 나무 무드등으로, 실루엣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라라랜드 김성향 씨의 '침



제27회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트나·윤제민 씨의 '경주의 밤 시리즈 무드등'

성대 콘서트 무드등'이 선정됐고 은상은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경주의 '경주밤 입욕제'가 수상했다.

동상에는 '침성대 향초위머'와 '신라 무드등'이 뽑혔고, 장려상에는 '골든시티 캔들홀더', '수막새 풍경 도어벨', '골든시티 캔들 4종', '신라의 미소 쉐어링 인장세트', '경주상징 카드스티커', '본디 댕기'가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책자로 제작돼 경주관광기념품으로 활용되며,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맛·멋·낭만 있는 '목포 문화유산 야행' 성료

8회 테마로 50여개 프로그램 진행

전남 목포시는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100년의 시간여행, 목포의 밤을 거닐다'란 부제로 열린 '2024 목포 문화유산 야행'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야(夜)를 테마로 달빛으로 물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 등을 배경으로 5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퍼레이드에는 만호동 주민들로 구성된 만호 풍물단과 야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야행의 의미를 살렸다.

올해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은 국가 무형유산 박방금.안부덕과 제자들의

하모니 '명장을 만나다', 1980년대 서민들의 애환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김시라 품바-날개없는 천사' 연극공연, 목포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등 예향의 도시 목포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공연들로 구성됐다.

올해 야행에서는 성옥 이훈동선생이 수집한 근·현대 작품과 고미술작품, 도자기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성옥기념관을 18~19일 이틀간 연장 개방하고, 전우용의 근대역사 토크콘서트와 목포의 청년들로 구성된 '브리앙트' 공연도 진행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민과 상생하는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여행하기 좋은 도시 목포를 찾아 목포의 맛과 멋, 낭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사천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평가 '대상'

올해 사업비 21억 투입

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영예로운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토양환경의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농협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 실적과 함께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유기질비료 품질 포율, 화학비료 사용 저감률, 교육 및 홍보 실적, 지자체 노력,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한 성과 등을 평가했다. 이어

실적 통계에 따른 정량평가와 지자체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도 반영했다.

사천시는 올해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5000여 농가에 유기질비료 1만 8600t, 토양개량제 3100t을 농가에 공급했다.

이에 경지면적 6964ha의 농지에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물 공급은 물론 화학비료 사용을 대폭 줄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유기질비료 품질 교육 및 점검, 친환경 농자재 홍보 등을 위한 노력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

울산시,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관리 추진

AI·IoT 활용해 실시간 점검·관리

울산 국가산단 내 노후 지하 배관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울산시는 국가산단 내 노후화된 지하 배관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산단 내 노후화된 지하 배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질 배관 1526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 916km 대상으로 사고 우려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105억, 시비 45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되며 울산시가 주관하며 울산테크

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AI 기반 실시간 점검 체계 및 통합관제실 구축 ▲IoT 기반 지하 배관 현장 안전평가 및 점검 체계 구축 ▲지하 배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매설지하 배관 안전관리 고도화 지원 등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공단 내 지하 배관에 첨단관리 기술 적용이 가능해져 부식 및 수명 예측을 통한 사고 예방은 물론,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산단의 노후화된 지하 배관의 안전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지하 배관에 첨단관리 기술 적용으로 울산 국가산단이 안전한 산업단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손병호 기자

진주시

내달부터 '진주시 건축상' 공모

진주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20회 진주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진주시 건축상'은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건축의 공공·예술·기능적 가치를 담은 우수건축물을 발굴·선정하는 행사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공모 대상 건축물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진주시에 건축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영주시

'SRT 어워드' 최고 여행지 선정

수서고속철도(SRT) 매거진이 주관하는 '2024 SRT 어워드'에서 경북 영주시가 '올해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SRT 매거진은 2016년 12월 개통한 서울 강남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의 탑승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열차 내 문화여행 전문잡지다.

올해 '2024 SRT 어워드'는 영주시를 비롯해 영월, 목포, 태백 등 10개 도시가 선정됐다. 영주시는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여행지'로 선정됐다. /영주(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포항시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성료

포항시는 지난 20일 제1회 포항시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 기·업 페스티벌을 포항중앙상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부시장을 비롯해 이상휘 국회의원, 시·도의원, 청년정책 유공자,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포항시 청년정책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매년 진행해 오던 기념행사를 확대 시행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열며 청년세대를 축하하고 그들의 꿈과 열정을 격려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